

“자연에 맡긴 화면... 고향과 나의 근원 담고 싶었죠”

‘채성필 흙 그림전_익명의 땅’展...내달 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근원의 공간에 대한 사유의 시각화, 무한한 순환의 철학 구현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과거와 미래...보편적 가능성 제시

“저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그려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일련의 그리는 행위 이후에는 자연에 맡기고,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채성필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위적인 재현 대신 자연의 흐름과 물질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의 작업 출발점에는 ‘흙’이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현대미술기획전 ‘채성필 흙 그림전_익명의 땅’은 이러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응축해 보여준다.

전시는 오는 6월14일까지 본관 5·6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여러 캔버스에 결합된 형태를 포함해 총 17점이 출품됐다. 파티션을 최소화하고 작품 명제를 없애 전시 자체에 집중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작가에게 흙은 단순한 재료를 넘어선다. 그는 “저에게 흙은 가장 쉽게 말하면 고향이고

어머니”라며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이르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작가의 작업은 대학 시절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진도에서 보낸 유년기와 서울, 프랑스로 이어진 삶의 경험이 흙이라는 물성을 통해 화면에 축적돼 있다.

전시 제목인 ‘익명의 땅’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땅, 저 땅처럼 소유된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마음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세계 어디에서 작업하던 흙은 결국 공통의 근원과 연결돼 있거든요. 어머니를 대하는 감정처럼, 땅 역시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근본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은 자연을 연상시키지만 특정한 풍경을 재현하지는 않는다.

화면 위를 흐르는 흔적과 층위는 대지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며, 외형이 아닌 그 아래 감춰진



채성필 작가의 흙 그림전 ‘익명의 땅’이 오는 6월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채성필 작가.

근본적인 자연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개입이다. 물의 흐름과 중력, 건조 과정 등이 그의 작품을 완성한다.

“작업은 일정한 행위 이후 자연에 맡겨지는 과정입니다. 흙과 물,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작업의 일부죠.”

그는 땅을 ‘시간의 층’으로 바라본다. 물이 지나간 자리, 흙이 쌓이고 갈라진 흔적들은 시간의 흐름이 남긴 결과라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해남의 흙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세계 각지에서 채집한 흙을 작업에 활용했다.

각각의 흙이 지닌 물성과 환경, 그 안에 축적된 시간까지 함께 끌어오는 방식이다.

“흙은 지역마다 모두 다르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자 역사입니다. 같은 흙은 하나도 없어요. 물성과 질감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시간까지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오래되고 안전한 천연 안료이기도 하죠.”

동양화 전공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해 온 이력은 작업의 또 다른 축을 이룬다.

한국에서 체득한 재료 감각과 조형 의식, 그리고 서구 미술 환경에서의 경험이 교차하며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경계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서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제 작업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전시는 개별 작품 설명을 털어내고, 전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품 전체를 하나의 땅처럼 느껴졌으면 해요. 그 안에서 각자가 떠올리는 기억과 감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풍경을 제 그림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명진 기자

‘바다의 시간.....흙에 머물다’

도예가 박미경 초대전...내달 30일까지 강진 느루갤러리



도예가 박미경(사진) 작가가 회갑을 맞아 파게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을 개최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강진읍 느루갤러리에서 ‘바다의 시간, 흙에 머물다’ 초대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걸어온 시간의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창작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올해 회갑을 맞은 작가의 예술적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함께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관객들에게 각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작품의 핵심 모티브는 어느 여름날 바닷가에서 마주한 작은 생명인 ‘파게비’로, 인간이 버리고 남긴 물질의 흔적들 사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파게비의 끈질긴 생명력이 작가에게 묵직한 울림을 줬다.

이러한 미세한 생명의 숨결은 정직한 재료인 흙과 만나 새로운 형상의 예술 작품으로 빛을 봤다.

전시장에는 ‘바다의 숨결’, ‘군락’, ‘금오도 어촌의 일상’,



‘바다의 숨결’ (강진군 제공)

‘사유하다’ 등 생명에 대한 애착과 섬세한 손길이 돋보이는 20여점의 작품이 선을 보인다.

박 작가는 “흙을 만지며 작업하는 시간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라며 “정직한 재료인 흙에 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을 통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정영록 기자

화순 청풍초 전교생이 만든 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2026 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작 선정

화순 청풍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장편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가 우크라이나 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영화 제작사 무당벌레는 25일 “박기복 감독이 진행한 ‘청풍 할리우드 영화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가 2026 ICJ 국제영화상(ICJ Awards)’에 공식 초청됐다”고 밝혔다.

작품은 오는 9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개막 프로그램 상영작으로 선정돼 9월12일 우크라이나 서부 우즈호르드 성에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공식 상영된다.

우크라이나 국제청소년영화제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평화, 미래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 문화행사다.

영화제가 열리는 우즈호르드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격화되면서 행사 장소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풍초 학생들은 영화제가 평화롭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화제 기간만이라도 휴전이 이뤄지길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 관련 기구에 전달



화순 청풍초에서 진행된 영화 제작 모습.

할 계획이다.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는 화순 폐광 지역을 배경으로 제작된 어린이 장편영화다. 전남도교육청과 화순군 지원 아래 청풍초 전교생이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역 탄광 역사와 광부들의 삶, 노동의 의미를 배우고 기록한 가족영화로 완성됐다.

한편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는 국제 영화교육 프로젝트 ‘Cinema in School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100여 개 학교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 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 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각 시·군 선착순 모집 ★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